

## 고전소설 속 도적들의 근거지로서의 해도 공간 연구\*

서혜은\*\*

— <차 례> —

1. 서론
2. 고전소설 속 도적들의 근거지로서 해도 공간의 설정 배경
3. 고전소설 속 도적들의 근거지로서 해도 공간의 형상화 방식
4. 고전소설 속 도적들의 근거지로 형상화된 해도 공간의 기능
5. 결론

### <국문초록>

본 논문은 <홍길동전><허생전><김학공전><서해무릉기>를 대상으로 하여 고전소설 속 도적들의 근거지로서의 해도 공간의 형상화 방식과 그 기능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홍길동전><허생전><김학공전><서해무릉기>에서 해도 공간이 도적들의 근거지로 설정될 수 있었던 것은 조선 후기 유민의 입도 현상과 입도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리고 해도 지역의 풍요로운 자연 환경과 경제적 기반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작품에도 반영되어 있다. <홍길동전><허생전><김학공전><서해무릉기>의 해도 공간은 공통적으로 도적들의 근거지로 설정되어 있지만, 각 작품의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에 작품에 설정된 해도 공간의 형상화 방식 또한 변별된다. <홍길동전>의 울도국은 조선왕에 대한 대항의 공간으로, <허생전>의 공도는 조선의 폐쇄적 유통 구조를 입증하는 공간으로, <김학공전>과 <서해무릉기>의 계도섬과 서해무릉은 각각 신분상승과 애정성취에 대한 도적들의 욕망이 좌절되는 공간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또한 <홍길동전>과 <허생전>의 해도 공간은 국외로, <김학공전>과 <서해무릉기>의 해도 공간은

\* 이 논문은 2012년 8월에 개최된 한국고전연구학회·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공동학술대회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발표의 기회를 주신 학회의 여러 선생님과 발표 당일 토론을 맡아 주신 엄태식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대구대학교 기초교육원 초빙교수

국내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작품에서 수행하는 해도 공간의 기능과 연관된 것이다. <홍길동전>과 <허생전>의 울도국과 공도는 집권층의 특권 의식과 조선의 통치 체제를 비판하며, <김학공전>의 계도섬은 저항 세력을 비판하며 신분제도로 대표되는 중세 봉건 지배 질서를 옹호하고 <서해무릉기>의 서해무릉은 무뢰한과 같은 조선 후기 부유·부랑 집단의 정착 의지를 반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주제어** 도적, 유민, 해도 공간, 이상향, 무뢰한, 부유·부랑 집단, <홍길동전>, <허생전>, <김학공전>, <서해무릉기>

## 1. 서론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바다로 둘러싸인 섬은 육지와 동떨어진 지리적 위치로 인해 이상향으로 간주되는데, 고전소설 속 海島 공간 또한 예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sup>1)</sup> <홍길동전>과 <허생전>의 해도 공간인 울도국과 無人空島를 이상향으로 논의하는 견해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이다.<sup>2)</sup> 그러나 울도국과 공도가 공통적으로 도적들

- 
- 1) 주장현, 『유토피아의 탄생, 섬-이상향/이어도의 심성사』, 돌베개, 2012, 9~287면.
  - 2) 고전소설의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된 해도가 이상향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은 주로 <홍길동전>과 <허생전>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김태준, 『<홍길동전>의 이상주의』, 『허균의 문학과 혁신 사상』, 새문사, 1981, I-61~65면; 이현국, 『<홍길동전>에 있어서 울도국의 위상과 성격』, 『문학과 언어』8, 문학과 언어학회, 1987, 17, 28면; 이운석, 최상천, <홍길동전>의 역사·사회적 분석, 『한국전통문화연구』5, 효성기독교대 전통문화연구소, 1989, 270~272면’에서는 <홍길동전>의 울도국이 이상 세계를 의미한다고 논의하고 있으며, ‘차용주, 『허생전의 모순과 한계성에 대한 고찰』, 『한국학논집』9,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2, 20면’에서는 허생이 도적의 무리를 이끌고 공도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을 이상 세계를 건설하고자 했지만, 좌절된 행위로 보았다. 또한 ‘소재영, 『한국문학에 나타난 이상향 연구』, 『동방문학비교연구총서』3, 한국동방문학비교연구회, 1997, 129~133면’에서는 <홍길동전>과 <허생전>에

의 근거지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홍길동전>과 <허생전>의 해도 공간을 이상향으로 간주하는 논의는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홍길동전>의 울도국은 신분에 대한 불만을 품고 도적의 피수가 된 홍길동이 도적들과 함께 조선을 떠나 정벌한 해외의 공간이며, <허생전>의 공도는 조선에서 경제력을 상실한 도적의 무리가 허생과 함께 경제 활동을 벌이는 해외의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조선에서의 신분 상승을 소망했던 홍길동의 욕망은 조선을 떠나면서 이미 좌절되었고, 도적의 무리와 함께 공도에서 경제 활동을 했던 허생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깨닫고 공도를 떠나고 만다. 따라서 <홍길동전>의 울도국과 <허생전>의 공도는 이상향이라기보다는 조선 후기 신분 제도와 경제적 상황을 비판하기 위해 설정된 공간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선행 연구에서 <홍길동전>과 <허생전>의 해도 공간을 이상향으로 간주하는 논의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sup>3)</sup> 하지만 여전히 <홍길동전>과 <허생전>의 해도 공간을 이상향으로 간주하는 논의가 우세하며, 이와 같은 논의가 지속적으로 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sup>4)</sup>

---

설정되어 있는 해도 공간을 모두 이상 세계로 간주했다.

- 3) 울도국은 길동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이상향의 성격은 약화되어 있다고 논의되었으며, 울도국을 이상향으로 규정짓기 어렵다는 논의까지 이미 제출된 상태에 있다(박일용, 『<홍길동전>의 문학적 의미 재론』, 『이본 변이 양상을 통해서 본 <홍길동전> 서술 시각의 중층성』, 『영웅소설의 소설사적 변주』, 월인, 2003, 165, 224~227면; 김정미, 『타자의 서사, 타자화의 서사, <홍길동전>』, 『고소설연구』30, 한국고소설학회, 2010, 202, 207면.

<허생전>의 공도 역시 조선 사회의 비판과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설정된 작자 나름의 형상화 방법으로 이상향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논의되었다. 김일철, 『박지원과 연암소설』, 『고전소설신론』, 새문사, 2001, 285면.

- 4) 이상현, 『<홍길동전>에서 이상향적 요소 연구』, 공주교대 석사학위논문, 2003, 34~54면; 정우선, 『한국문학에 나타난 이상사회 구현 양상 고찰 - 현실적 이상사회를 중심으로-』, 중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47~86면; 강동엽, 『허균과 유포피아』, 『한국어문학연구』41,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3, 142~143, 155~161, 165~166

또한 <홍길동전>과 <허생전>뿐만 아니라 도적들의 근거지로 설정된 <서해무릉기>의 해도 공간인 서해무릉 역시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선행 연구에서 이상향으로 논의되었다.<sup>5)</sup> <서해무릉기>의 서해무릉은 도적이 오랜 기간 동안 흠모해 온 최씨를 유연과 혼인한 첫날밤에 납치하여 감금하는 공간으로, 최씨는 자신을 찾아온 유연과 함께 서해무릉을 탈출하는데 성공하기 때문에 도적의 욕망은 좌절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서해무릉기>의 서해무릉 역시 <홍길동전>의 울도국, <허생전>의 공도와 마찬가지로 이상향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다고 본다.

<홍길동전><허생전><서해무릉기>뿐만 아니라 고전소설 속 해도 공간이 도적들의 근거지로 설정된 작품에는 <김학공전><신계후전><태원지>가 있다. <김학공전>과 <신계후전>의 계도섬과 고금도는 은거하던 도망 노비 도적들이 각각 김학공과 신계후에 의해 징치당하는 공간이며, <태원지>의 해도 공간은 도적과 함께 요괴가 기거하는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홍길동전>과 <허생전>뿐만 아니라 <김학공전><신계후전><서해무릉기><태원지>에서 도적들이 기거하는 해도 공간 역시 조선 후기 시대적 모습을 반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고전소설에서 도적들의 근거지로 해도 공간이 설정된 것은 조선 후기 해도 지역에 도적, 도망 노비, 역모 연좌자와 같은 유민들이 대거 유입되었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현상으로 보이

면; 김종근, 『해외개척 대도 설화의 소설 유입 양상과 의미 -<허생전>과 <홍길동전>의 경우-』, 『어문연구』50, 어문연구학회, 2006, 5~35면; 이문규, 『‘허생’의 인물형상고』, 『선청어문』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08, 388~396면; 김수중, 『<허생전>의 시대정신과 현대적 적용의 문제』, 『한민족어문학』56, 한민족어문학회, 2010, 215~216면; 이정남, 『<홍길동전> 연구 - 울도국이 지니는 의미를 중심으로-』, 호남대 석사학위 논문, 2012, 28~49면.

5) 이정화, 『<서해무릉기>의 탐색 모티프 연구』, 경북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7, 48~54면.

기 때문이다.<sup>6)</sup> 특히 도적 집단의 발생과 활동이 농촌에서 유리된 농민들이 벌이는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저항이며<sup>7)</sup> 조선 후기 농민층의 유망 현상이 중세 사회의 해체기인 조선후기사의 산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sup>8)</sup> 고전소설에서 도적들의 근거지로 설정된 해도 공간은 조선후기 유민들의 모습과 의식을 반영하기 위해 설정된 문학적 장치의 기능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본 논문에서는 고전소설에서 도적들의 근거지로 설정된 해도 공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고전소설의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된 해도가 도적들의 근거지로 형상화된 작품에는 <홍길동전><허생전><김학공전><신계후전><서해무릉기><태원지>가 있다. 그러나 <신계후전>은 <김학공전>의 개작으로 평가받는 작품으로, <신계후전>에서 주인의 재물을 훔친 도망 노비들이 고금도에 은거하는 내용은 <김학공전>과 유사하게 전개된다. 또한 <태원지>에도 해도 공간에 거주하는 도적들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작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부에 불과하며 작품의 해도 공간들은 대부분 요괴들이 기거하는 장소로 등장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홍길동전><허생전><김학공전><서해무릉기>의 네 작품을 대상으로 도적들의 근거지로 설정된 해도 공간의 형상화 방식과 해도 공간의 기능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6) 조선 전기에는 왜구와 해적에 대응하여 섬의 입주를 제한하는 공도 정책을 실시했지만, 임란 이후 17세기에 이르러 도서 지역에는 도망 노비, 연모 연좌자, 도적 등과 같은 유민들이 대거 유입되었다고 한다. 변주승, 『조선후기 유민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1997, 78~84면; 김경옥, 『조선후기 도서 연구』, 해안, 2004, 47~53면.

7) 한희숙, 「17세기 후반 도적활동과 국가의 대책」, 『조선시대사학보』21, 조선시대사학회, 2002, 67~71면.

8) 변주승, 앞의 논문, 220면.

섬과 도적의 연관 관계가 조선후기 시대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sup>9)</sup>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홍길동전><허생전><김학공전><서해무릉기>의 네 작품이 지향하는 의미는 각기 다르지만, 도적들의 근거지로 설정된 해도 공간에 대한 논의는 고전소설을 통해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해가는 조선 후기 사회의 부조리와 병폐의 일부를 고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판 30장본 <홍길동전 권지단>, 민족문화추진회에서 발행한 『열하일기』의 『옥갑야화』에 수록된 허생과 관련된 이야기, 단국대학교 울곡도서관 소장 42장본 <김학공전>, 김광순 소장 27장본 <서해무릉기 권지단>을 대상으로 하여 고전소설 속 해도 공간이 도적들의 근거지로 설정된 시대적 배경, 형상화 방식과 그 기능에 대해 고찰하는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2. 고전소설 속 도적들의 근거지로서 해도 공간의 설정 배경

### 1) 유민의 입도 현상과 입도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홍길동전><허생전><김학공전><서해무릉기>의 해도 공간은 공통적으로 도적들의 근거지로 설정되어 있다. <홍길동전>의 체도는 신분에 대한 불만으로 기출하여 도적의 괴수가 된 홍길동이 도적의 무리와 함께 일시적으로 기거하는 곳이며, 울도국은 홍길동이 도적의 무리와 함께 정별한 국가이다. 그리고 <허생전>의 변산반도와 공도는 모두 도적이 기거하는 공간으로, 허생은 변산반도에서 기거하던 도적 무리를 이끌고 공도에서 함께 생활한다. 또한 <김학공전>의 계도섬은 주인의 재산을 훔친

9) 김종균, 앞의 논문, 31면.

노비 도적들이 도망하여 신분을 속이고 살아가는 곳이며, <서해무릉기>의 서해무릉은 도적이 유연과 혼인한 최씨를 납치하여 감금하는 곳이다. 이처럼 네 작품에 등장하는 해도 공간은 공통적으로 도적들의 근거지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들 작품에서 해도 공간이 도적들의 근거지로 설정될 수 있었던 것은 조선 후기 유민들의 입도 현상과 입도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조선 후기 농업 경영의 변화와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그리고 과도한 과세와 역은 농민층이 분해되어 유민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유민들은 새로운 생계 수단과 정착지를 찾아 도시·농촌·광산·변경 지역 등으로 이주했는데, 17세기 이후에는 해도 지역으로 대거 이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 전기까지는 국가의 공도 정책으로 인해 일반인의 입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진도·거제도·남해도 등 큰 섬을 중심으로 유민들은 유입되고 있었고 17세기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유민들이 대거 해도로 유입되어 해도 지역의 인구는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입도민 가운데는 도망 노비·역도 연좌자·도적들이 포함되어 있어 조선 후기 해도 지역을 대체로 범죄나 도피자들의 근거지로 보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있었다는 점이다.<sup>10)</sup> 이러한 조선 후기 유민의 입도 현상과 입도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홍길동전><허생전><김학공전><서해무릉기>의 해도 공간이 도적들의 근거지로 설정된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유민들 가운데 일부는 도적 집단을 형성하여 관아나 지배층, 부호와 장사꾼 등을 비롯하여 불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탈 행위를 일

10) 『영조실록』에는 섬 주민의 대부분이 죄를 짓고 도피하거나 사노비가 도망하여 숨어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변주승, 앞의 논문, 7~19면, 78~88면.

삼으면서 지배층에게 저항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sup>11)</sup> <홍길동전><허생전><김학공전><서해무릉기>에서도 지배층에 저항하는 도적들의 모습이 발견된다. <홍길동전>의 홍길동은 신분에 불만을 품고 도적의 괴수가 되어 왕권에 대항하며, <김학공전>의 노비들은 주인을 죽일 계교를 마련하고 주인의 재물을 약탈하는 도적들이다. 그리고 <허생전>과 <서해무릉기>에는 조정에서 끝내 잡지 못하는 도적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두 작품에서는 지배층에 대한 도적들의 저항과 함께 지배층의 한계까지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2)</sup> 또한 <김학공전>과 <서해무릉기>에 등장하는 도적들은 김학공과 별선, 유연과 최씨 사이의 애정 갈등을 유발하여 가정을 파괴하는 악인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처럼 <홍길동전><허생전><김학공전><서해무릉기>의 해도 공간이 지배층에 저항하는 도적들의 근거지로 설정된 것은 조선후기 유민의 입도 현상과 입도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던 조선 후기 시대적 배경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11) 한희숙, 앞의 논문, 67면, 76~80면.

12) <허생전>에서 군졸들은 전라도 변산반도에 활동하는 도적들을 잡을 수 없었고, <서해무릉기>의 유연은 조정에 상소하여 도적을 잡고자 했지만 끝내 잡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 <서해무릉기>는 김광순 소장 27장본과 이화여대 소장 53장본이 현전하는데, 도적이 우소저를 납치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연이 조정에 상소하는 장면은 김광순 소장본에서만 확인되는 내용이다.

① 이때 마친 변산(邊山)에 도적 수 천 명이 떼를 지었다. 주(州)·군(郡)에서 군졸을 징발하여 뒤를 쫓아 잡으려 하였으나 잡지 못하였다. 박지원 원저,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열하일기』Ⅱ, 경인문화사, 1976, 301면.

② 그더적이 최씨 정영히 죽은 줄알고 다시 우조셔를 취함이라 뉴찰사 전일 최시 내려가든 도적인줄 명백히 알고 격분하여 조정의 상소하고 잡고져하나 조최 부평갓 흐며 깊고 깊히니 능히 다르지 못하고 좃기어렵더라. <서해무릉기 권지단>, 『김광순 소장 필사본 한국고소설전집』8, 경인문화사, 1998, 52~53면.

## 2) 해도 지역의 풍요로운 자연 환경과 경제적 기반

<홍길동전><허생전><김학공전><서해무릉기>에 등장하는 도적들은 공통적으로 내륙 지역을 떠나 해도 지역으로 이주한 유민의 형상을 취하고 있다.<sup>13)</sup> <홍길동전>의 홍길동은 임금에게 병조판서를 제수 받고 조선을 떠나 도적의 무리를 이끌고 제도섬에 이르렀으며, <허생전>에서 빈궁하여 도적이 된 무리들은 삼십만 냥을 가지고 나타난 허생과 함께 沙門과 長崎 사이에 위치한 해외의 공도로 들어간다. 그리고 <김학공전>에서 주인의 재물을 훔친 노비들은 훔친 재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양반 행세를 하기 위해 계도섬으로 이주하며, <서해무릉기>에서 최씨를 납치한 도적은 최씨를 감금하기 위해 백두산에서 서해무릉이라는 섬으로 이주한다. 이처럼 <홍길동전><허생전><김학공전><서해무릉기>에서 유민의 형상을 취하는 도적들이 해도 공간으로 이주하여 근거지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풍요로운 자연환경과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던 조선 후기 해도 공간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실제로 극심한 자연 재해와 경제적 기반의 붕괴로 인해 발생한 조선 후기 유민들은 생계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해도 지역으로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조선 전기의 공도 정책으로 인해 해도 지역의 주민 거주가 금지되기도 했지만, 농사에 비해 세금이나 부역에 대한 부담이 적은 것으로 알려진 어염업과 국가적인 차원에서 목장을 개간하여 설치하고 운영했던 둔전과 궁방전으로 인해 조선 후기 해도 지역은 국가의 財富을 창출하는 곳으로까지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조선 후기 해도 지역

13) <홍길동전><허생전><김학공전><서해무릉기>에 등장하는 도적들은 공통적으로 유민의 형상을 취하고 있지만, <홍길동전>과 <허생전>의 해도가 국내가 아닌 국외 지역으로 설정된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 작품의 해도 지역에 기거하는 도적들은 이민으로도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의 풍요로운 자연 환경과 그로 인해 확립되기 시작한 경제적 토대는 토지에서 유리된 유민들이 경작지를 찾아 입도하기 시작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sup>14)</sup>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홍길동전><허생전><김학공전><서해무릉기>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들 작품에서 유민의 형상으로 등장하는 도적들의 근거지로 설정된 해도 공간은 상당히 풍요로운 곳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① 각설 길동이 경조 일척 석을 엮고 삼천 적당을 거느려 도선을 하직하고 디희의 씨 남경씨 제도섬으로 드러가 슈십만 집을 지으며 농업을 힘쓰고, 혹 지조를 비아 무고를 지으며 군법을 연습하니 이 곳은 본디 그윽흔 곳이라 알 이 업고, 또흔 가산이 부요흔지라<sup>15)</sup>

② 츠시 울도국이란 나라히 잇스이 지방이 슈천 니오 스면이 막히여 진짓 금성철이오 텃부지 국이라<sup>16)</sup>

③ (상략) 제 일찌기 바람에 휩쓸려서 줄곧 서쪽으로 간 지 사흘 낮 밤 만에 어떤 빈 섬에 닿았습니다. 그곳은 아마 사문(沙門)·장기(長崎) 사이에 있는 듯싶은데, 모든 꽃과 잎이 저절로 피며, 온갖 과일과 오이가 저절로 성숙되고, 사슴이 떼를 이루었으며, 노니는 고기들은 놀라지 않더이다.<sup>17)</sup>

④ 그놈들리 즉시 길을 썬나 슈노로 십여일 들어가니 한숨잇시되 일흠은 제도슴이라 즈족 일촌흔여 혹 장스도흐며 혹 흥선도 민들러 싱의흐니 가슨

14) 김경옥, 앞의 책, 107~177면.

15) 경판 30장본 <홍길동전 권지단>, 『고소설관각본전집』5, 연세대학교, 1975, 1012면.

16) 경판 30장본 <홍길동전 권지단>, 위의 책, 1015면.

17) 常漂風直西行日夜 泊一空島 計在沙門長崎之間 花木自開 葉菰自熟 麋鹿成群 游魚不驚. 박지원 원저,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열하일기』II, 경인문화사, 1976, 300~301, 586면.

이 요부하야 부촌이 되었더라<sup>18)</sup>

⑤ 이룬구러 삼년이 지날시 유성이 서희에 비를 뿌워 디양의 방황홀제 일 〃 은 한곳에 이나러보니 슈다청손은 물우에 소삿난디 천봉만학은 봉마다 그이히고 데식은 광활하며 경제결승하더니 싱이 비에나려 점 〃 깃히 드러가 더 인가업고 산슈 더욱 말고 슈려하니 심니에 흠탄차하하고 십여니롤더헿하니 큰섬이 잇스디(중략)세인이 미모를 흠선 차탄하여 갈오더 디고은 지명이 서희무릉이라 싯홀보아 봄을 알고 단풍이 드러 낙엽디외야 가을인줄아나니라하고 다도아 양식을 쥘느즈 만흐니 인심이 순후흠은 기히 알깃스며 바랑이 무거워 피지못하더라<sup>19)</sup>

위 인용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도적의 괴수가 된 홍길동이 조선을 떠나 도적의 무리와 함께 정착하는 제도와 율도국 그리고 허생이 도적의 무리를 이끌고 들어간 공도는 자연 환경이 풍요로우며 경제적 기반이 갖추어진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다. 노비 도적들이 거주하는 <김학공전>의 계도섬 역시 부촌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김동지가 김학공을 서당에 보내 공부를 시키고 매달 양식까지 챙겨주는 장면을 통해 섬에서 풍요롭게 생활하는 노비 도적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sup>20)</sup> 또한 <서해무릉기>의 서해무릉 역시 경치가 좋은 곳으로, 서해무릉의 주민들이 양식을 구걸하는 유연에게 바랑이 무거운 정도로 양식을 나누어 주고 서해무릉에 기거하

18) 단국대학교 율곡도서관 소장 42장본 <김학공전>, 7-2면.

19) <서희무릉기 권지단>, 앞의 책, 22~23면.

20) (상략)동지민망하여 학공덜어왈 니가 너를 사랑하여 집이두고 즈미를 보즈하엿더니 할미 박디 이갓튼이 니학당을 으더즐거시니 학업이나 힘써라하디 학공이 답왈 죽히 쫓스올이잇가하거늘 동지 비난을 서당에 보니고 혼달에 빅미열말식 주고 공부를 심서 식히더니 학공이 문일지십하여 문필이 달통할뿐아니라 즈연군즈된지라. 단국대학교 율곡도서관 소장 42장본 <김학공전>, 11-2면.

는 도적이 최씨의 처소를 큰 궁전으로 정하라고 명령하는 모습에서는 풍요로운 자연 환경과 함께 경제적인 기반을 확립한 주민들의 생활상과 부를 축적한 도적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sup>21)</sup>

이처럼 <홍길동전><허생전><김학공전><서해무릉기>에 설정된 도적들의 근거지인 해도 공간이 풍요로운 자연 환경과 경제적 기반이 갖추어진 곳으로 설정될 수 있었던 것은 자연 재해와 경제적 기반의 붕괴로 인해 발생한 유민들이 풍요로운 자연 환경과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던 해도 지역으로 유입되었던 조선 후기 해도 공간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 3. 고전소설 속 도적들의 근거지로서 해도 공간의 형상화 방식

<홍길동전><허생전><김학공전><서해무릉기>의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된 해도는 공통적으로 도적들이 기거하는 장소로 되어 있지만, 네 작품의 지향하는 의미가 각기 다른 만큼 해도 공간이 작품에서 형상화되는 방식 또한 다양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들 네 작품에서 도적들의 근거지로 등장하는 해도 공간의 형상화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1) 조선왕에 대한 대항의 공간 : <홍길동전>

<홍길동전>이 이미 농민 저항의 정신적 산물로 평가받은 것처럼 <허

21) 이에 장군이 최씨 처소랄 큰 궁전의 정허라하니 최시듯고 괴로이너겨 부인께 갈오더첩이 부인의 호성지적을 일명이 구존히스라스나 진실노 변화한 곳에 처혹음이 불가호오니 후원 은밀한 곳에 처소를 정허고져하니. <서해무릉기 권지단>, 앞의 책, 16면.

생전><김학공전><서해무릉기>에 등장하는 도적들과 달리 홍길동은 의적의 모습으로 등장한다.<sup>22)</sup> 홍길동의 의적 활동은 자신의 신분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적서 차별에 대한 가정과 사회에 대한 저항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홍길동의 저항 행위를 저지하지 못하는 집권 세력들은 홍길동의 요구에 따라 회유책으로 홍길동에게 병조판서를 제수하여 조선을 떠나게 하지만 조선을 떠난 홍길동은 제도에 머물면서 울도국을 정벌할 계획을 세운다. 따라서 <홍길동전>에서 제도는 아래의 예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홍길동이 울도국을 정벌하여 왕이 되고자 계획하고 준비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① 니 임의 묘션을 하직하여스니 이곳의 와 아직 은거하여다가 대스를 도 모히리라<sup>23)</sup>

② 길동이 미양 니곳을 유의하여 왕위를 앗고져 하더니 이제 삼년상을 지니고 귀운이 활발하여 세상의 두릴 스름이 업는지라 일 ” 은 길동이 제인을 불너 의논 왈 니 당초의 스방으로 단닐제 울도국을 유의하고 이곳의 머무더니 이제 마음이 자연 디발하니 운슈 널니물 알지라 그디등은 나를 위하여 일군을 조발하면 족히 울도국 치기는 두리지 아니리니 엇지 디스를 도모치 못히리오<sup>24)</sup>

홍길동이 제도에서 울도국을 정벌하여 왕이 되고자 계획하는 것은 조선왕과 본격적으로 대항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홍길동은 병조판서를 제수 받고 조선을 떠났지만 홍길동의 조선 사회에 대한 저항은 끝나지 않

22) 임형택, 『홍길동전 신고찰』,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 비평사, 1984, 113~126면.

23) 경판 30장본 <홍길동전 권지단>, 앞의 책, 1012면.

24) 경판 30장본 <홍길동전 권지단>, 위의 책, 1015면.

았다. 홍길동의 조선에 대한 저항이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은 홍길동이 조선을 떠나기 전에 왕을 찾아가 그 동안의 행동을 뉘우치는 척하면서, 자신의 심중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눈을 뜨지 않고 조선을 아주 떠나겠다고 하며 정조 천 석을 요구하는 장면에서 확인된다.

신이 전하를 밧드러 만세를 피시려 호오나 혼갓 천비 쇼싱이라 문과를 호오나 옥당의 참너치 못홀 거시오 무과를 호오나 선천의 막히올리니 이러무로 마음을 정치 못하와 팔방으로 오유호오며 무뢰지당으로 관부의 작폐하옵고 도정을 요란케 호오문 신의 일흠을 들쭈와 전히 아르시게 호오미러니 국은이 망극호와 신의 쇼원을 푸러쭈옵시니 충성으로 섬기미 올스오나 그러치 못하와 전하를 하직호옵고 도선을 영〃떠나 혼업슨 길을 가오니 정조 일천 석을 셔강으로 다여 쭈옵시면 전하 덕택으로 슈천 인명이 보전헐가 호나이다 상이 즉시 허락호시고 가로샤더 전일의 네 얼골을 즈서이 못 보아더니 급일 비록 월히나 얼골을 드러 나를 보라 호시니 길동이 비로쇼 얼골은 드러 눈을 뜨지 아니호거늘 상이 가로샤더 네 엇지 눈을 뜨지 아니호난뇨 길동이 더왈 신이 눈을 뜨면 전히 놀나실가호느이다<sup>25)</sup>

조선에서는 도적에 불과했던 홍길동은 의적 활동을 벌인 대가로 조선 왕에게 병조판서를 제수 받고 조선을 떠나야 했지만 조선을 떠난 길동은 울도국을 정벌하여 결국 조선왕과 동일한 지위에까지 오른다. 조선을 떠난 홍길동이 울도국을 정벌하여 왕이 된 후 울도국을 태평하게 통치하는 행위는 조선왕에 대한 대항 행위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26)</sup>

25) 경판 30장본 <홍길동전 권지단>, 앞의 책, 1012면.

26) 이미 선행 연구에서 홍길동의 울도국 건설이 조선 사회에 대한 일종의 경쟁 행위로 간주된 바 있다. 홍길동의 경쟁 행위 자체는 왕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체제의 핵심 세력에 대한 간접적인 대결이기 때문에 별도의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으며, 불만을 말로 전달하는 행위 대신 경쟁행위를 통해 보여 주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논의되었다.

이처럼 홍길동이 율도국을 정벌하여 왕이 된 것이 조선왕에 대한 대항 행위라는 것은 홍길동이 율도국의 왕이 된 이후에 전임 병조판서의 자격으로 빌린 정조 천 석을 갚으면서 조선왕에게 표문을 올리는 장면에서 확인된다.<sup>27)</sup> 홍길동이 조선왕에게 올린 표문의 내용이 겉으로는 조선왕에게 예를 갖추어 지난 일을 사죄하고 빌린 정조 천석을 갚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선왕을 중심으로 한 지배 체제의 행동을 비판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남 병도판서 율도국왕 신 홍길동은 돈슈빅히흐옵고 일봉 표문을 도선국 성상 탐하의 올니옵느니 신이 본디 천비 쇼심으로 못된 마음이 편협호와 성상의 턴심을 산난케 흐오니 이망 불춤이 업습고 또 신의 아비 천흔 즈식으로 말미암아 신병이 되오니 이만 불효 업습거늘 전히 이런 죄를 스흐시고 병도판서를 시키시며 정조 천 석을 스급흐옵시니 이 망극흐은 턴은을 갑홀길 업스오며 신이 스방으로 유리흐다가 즈연이 군스를 모흐니 정병이 슈천이라 율도국의 드러나 흐 번 북 쳐 나라홀엇도 외람이 왕위의 거흐오니 평생한이 업스온지라 이러무로 미양 성상의 디덕을 앙모호와 정조 천 석을 환상흐오니 북망 성상은 신의 외람흔 죄를 사흐시고 만슈무강흐옵소서<sup>28)</sup>

김일렬, 『홍길동전의 구조와 의미』, 『국어국문학』99, 국어국문학회, 1988, 96면.

27) 홍길동이 조선왕에게 표문을 올리는 내용은 김동욱 소장 89장본, 박순호 소장 86장본, 김광순 소장 69장본, 54장본, 정우락 소장본, 동양문고 소장본을 비롯하여 경판본과 활자본을 포함한 이본에 포함되어 있지만, 홍길동이 조선왕에게 표문을 올리는 내용은 <홍길동전>의 모든 이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은 아니다. 그러나 현전하는 <홍길동전>의 이본 가운데 길동이 조선왕에게 표문을 올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본의 수가 더 많고, 경판본의 여러 이본과 활자본에 길동이 조선왕에게 표문을 올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홍길동전>의 이본 내용 가운데 결말에 홍길동이 조선왕에게 표문을 올리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본이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8) 경관 30장본 <홍길동전 권지단>, 앞의 책, 1016면, 이윤석, 『홍길동전 연구 - 서지와 해석』,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6, 246면.

위 인용문의 밑줄 친 부분에서 드러나듯이 홍길동은 병조판서를 제수 받자 마자 조선을 떠나게 만든 조선왕에게 자신이 잘못된 결과, 조선을 떠나 여러 곳을 다니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군사를 수천 명이나 모았고 울도국을 단 한 번 쳤을 뿐인데 왕이 되었기에 평생의 한이 없어졌다고 한다. 이러한 작품 전반에 걸친 홍길동의 조선왕에 대한 대항 행위는 울도국을 정벌하여 왕이 되고 조선왕에게 빌린 정조 천석을 갚으면서 마무리된다. 그러므로 <홍길동전>의 해도 공간으로 설정된 울도국은 홍길동이 조선을 떠나 조선왕에 대항하는 공간으로 형상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 2) 조선의 폐쇄적 유통 구조의 입증 공간 : <허생전>

박지원은 『열하일기』의 전반에서 조선의 폐쇄적인 정치와 경제 구조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러한 박지원의 견해는 「옥갑야화」 편에 수록된 <허생전>에서 집약적으로 표출되어 있다. <허생전>의 전반부에서는 폐쇄적인 조선의 경제 구조를, 후반부에서는 정치 구조를 비판하는 형태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허생전>의 변산반도에 기거하는 도적들은 조선의 폐쇄적인 경제 구조의 폐단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들은 <홍길동전><김학공전><서해무릉기>의 해도 공간에 기거하는 도적들과 달리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도적이 된 유민의 형상을 취하고 있다. 작품에서도 제시되어 있듯이 변산반도의 도적들은 생활이 궁핍하여 도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고, 도적이 되어서도 돈에 대한 걱정을 하며 굶주림에 허덕인다고 서술되어 있다.<sup>29)</sup>

29)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도적으로 전락하는 폐단은 비단 조선 후기뿐만 아니라 16세기에서 18세기에 걸친 유럽과 19세기에서 20세기의 전세계에서 만연한 현상으로 논의된 바 있다. E.J.홉스봄, 황의방 역, 『의적의 사회사』, 한길사, 1969, 16~19면.

① 이때 마침 변산에 도적 수 천 명이 떼를 지었다. 주·군에서 군졸을 징발하여 뒤를 쫓아 잡으려 하였으나 잡지 못하였다. 그러나 못 도적 역시 잡시도 밖으로 나와서 노략질을 하지 못하여 방금 주리고 곤한 판이다.<sup>30)</sup>

② 이때에 못 도적은 웃으며 ‘밭 있고 아내 있다면야 어찌 이다지 괴롭게 도적질을 일삼겠수’한다. 허생은 ‘정말 그렇다면 아내를 얻고 집을 세우고 소를 사서 농사지어 살면 도둑놈이란 더러운 이름도 없을 뿐더러 살림살이엔 부부의 낙이 있을 것이며, 아무리 나와서 쏘다닌다 하더라도 체포당할 걱정이 없고, 길이 잘 입고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는가’했다. 못 도적은 ‘그야 정말 소원이겠지만 다만 돈이 없을 뿐이어요.’한다.<sup>31)</sup>

이처럼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도적으로 전락한 무리들은 <허생전> 전 반부에서 전개되는 허생의 독과점 행위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허생전>에서 허생의 독과점 행위는 허생이 변산반도에 기거하는 도적의 무리를 이끌고 공도로 들어가 농사를 짓고 무역을 하는 행위와 함께 허생 자신이 행한 시험이라고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sup>32)</sup> 그렇다면 변산

30) 是時邊山群盜數千 州郡發卒逐捕不能得 然群盜亦不敢出剽掠 方饑困. 박지원 원저,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열하일기』Ⅱ, 301, 586면.

31) 群盜笑曰有田有妻何若爲盜 許生曰審若是也 何不娶妻樹屋 買牛耕田 生無盜賊之名而居有妻室之樂 行無逐捕之患長享衣食之饒乎 群盜曰豈不願如此但無錢耳. 박지원 원저, 민족문화추진회, 위의 책, 302, 586면.

32) 허생은 굶주려 울면서 하는 아내의 말에 변씨를 찾아가 시험해 볼 일이 있다고 하면서 돈 만금을 빌리고, 도적들을 이끌고 공도에 들어가 농사를 짓고 무역을 한 이후에 이제 자신의 시험이 끝났다고 한다.

① 내 집이 가난해서 무엇을 조금 시험해 볼 일이 있어 그대에게 만금을 빌리러 왔소. 박지원 원저,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열하일기』Ⅱ, 경인문화사, 1976, 299면.

② 장기도는 일본(日本)의 속주(屬州)로서 호수(戶數)가 삼십 일만이나 되는데, 바야흐로 큰 흉년이 들었는지라 드디어 다 풀어 먹고도 은(銀) 백만 냥을 거두었다. 허생은 탄식했다. ‘이제 내 조그만큼 시험해 보았구나.’ 박지원 원저, 민족문화추진회, 위의 책, 303면.

반도의 도적들은 독과점 행위와 같은 화폐 경제의 병폐로 인해 발생한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허생은 독과점 행위로 많은 수익을 창출했지만 허생과 대조적으로 변산반도의 도적들은 생활이 궁핍하여 도적이 될 수밖에 없었고 도적이 되어서도 궁핍함이 여전하다고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산반도의 도적 무리와 함께 공도에 거주하는 허생의 생활은 조선의 경제 구조에 대한 박지원의 견해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허생의 독과점 행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의 허생이 변씨에게 언급한 대목에서도 드러나듯이 허생의 독과점 행위는 조선 후기 상업 활동의 부정적 폐단으로, 조선의 유통 구조가 폐쇄적인 데서 기인했으며 이러한 폐쇄적인 유통 구조는 백성들의 생활을 궁핍하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sup>33)</sup>

(상략)우리 조선은 배가 외국과 통하지 못하고, 수레가 국내에 두루 다니지 못하는 까닭으로, 백물이 이 안에서 생겨서 곧 이 안에서 사라져 버리곤

33) 『열하일기』의 『일신수필』편에 등장하는 <車制>에서도 인용문과 유사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박지원은 중국과 달리 조선의 폐쇄적인 유통 구조가 백성들의 생활을 빈궁하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략)이러므로 중국의 재산이 풍족할 뿐더러 한 곳에 지체되지 않고 골고루 유통함은 모두 수레를 쓴 이익일 것이다. 이제 천근한 예를 든다면, 우리 사행이 모든 번폐로움을 없애버리고 우리가 만든 수레에 우리가 올라 타고 바로 연경에 닿을 텐데 무엇을 꺼려서 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리하여 영남 어린이들은 백학젓을 모르고, 관동 백성들은 아가위를 절여서 장 대신 쓰고, 서북 사람들은 감과 감자(柑子)의 맛을 분간하지 못하며, 바닷가 사람들은 새우나 정어리를 거름으로 밭에 내건만 서울에서는 한 움큼에 한 푼을 하니 이렇게 귀함은 무슨 까닭일까(중략)이제 이곳에 천한 물건이 저곳에서는 귀할 뿐더러 그 이름은 들어도 실지로 보지 못하는 어찌된 까닭일까. 그는 오로지 멀리 나를 힘이 없기 때문이다. 사방이 겨우 몇 천리밖에 안 되는 나라에 인민의 살림살이가 이다지 가난함은 한 말로 표현한다면 수레가 국내에 다니지 못한 까닭이라 하겠다. 박지원 원저,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열하일기』 I, 182~183면.

하지 않나.(중략)그리하여 물의 산물이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그 하나를 슬그머니 독점해 버린다든지, 물에서 나온 고기들의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그 하나를 슬그머니 독점해 버린다든지, 의약의 재료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그 하나를 슬그머니 독점해 버린다면, 그 한 가지의 물건은 한 곳에 갇히매 모든 장사치의 손 속이 다 마르는 법이니, 이는 백성을 못살게 하는 방법이야. 뒷세상에 나라 일을 맡은 이들이 행여 나의 이 방법을 쓰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 나라를 병들게 하고 말 걸세.<sup>34)</sup>

하지만 국내의 해도 공간인 변산반도에서 빈궁에 허덕이던 도적들은 조선을 떠난 해외의 해도 공간인 공도에서는 허생의 도움으로 성실히 농사를 짓고 무역을 하여 진흙까지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허생의 시험은 국내의 폐쇄적인 유통 구조로 인해 국가 경제에 폐단이 발생하고 백성들의 삶이 극단적으로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박지원의 견해를 제시하고 입증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선 후기 私商들의 도고 행위는 상품의 유통 구조를 붕괴시켰고, 시전들의 도고 행위는 물가 상승을 유발하여 도시민 전체의 생계를 위협하고 정부의 물가 조절권마저 위협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sup>35)</sup>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허생전>의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된 해도 공간인 국내의 변산반도와 해외의 공도는 조선의 폐쇄적인 유통 구조의 병폐를 입증한 공간으로 형상화된 것으로 생각된다.<sup>36)</sup>

34) 朝鮮 舟不通外國 車不行域中故 百物生于其中 消于其中(中略)陸之產萬 潛停其一 水之族萬 潛停其一 醫之材萬 潛停其一 一貨潛藏 百賈涸 此賊民之道也 後世有司者 如有用 我道必病其國. 박지원 원저, 민족문화추진회, 위의 책, 305~306, 587면.

35) 백승철, 「영·정조대 상업정책의 전개와 그 특징」, 『동방학지』 11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2, 48~60면.

36) 『열하일기』의 「동란섭필」에서 언급된 일본 장기도와 관련된 부분을 고려한다면

## 3) 욕망의 표출과 좌절의 공간 : &lt;김학공전&gt;(서해무릉기)

<홍길동전><허생전><서해무릉기>와 달리 <김학공전>에 등장하는 도적들은 천민 노비의 신분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분에 불만을 품고 신분 상승을 목적으로 주인을 죽이고 재물을 훔쳐 계도섬으로 들어가 양반 행세를 하면서 지낸다. 아래의 인용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김학공전>의 노비들은 신분 상승을 목적으로 주인의 재산을 탈취하여 계도섬에 정착했고, 이들 도망 노비 가운데 한 명인 김동지는 계도섬에서 양반 행세를 하면서 자신의 딸 별선을 김학공과 혼인시킨다. 따라서 <김학공전>의 계도섬은 노비 도적들이 신분을 상승하고자 하는 욕망이 표출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 노즈중 박명석제라하논놈이 혼흉계를 심각하고 저의동요를 청하야 의논할 우라가 미양 남의 종노릇만헌단말가 지금 승전이 부인과 어린아히뿐이라 잇씨를 타 승전을 다죽이고 시간지물을 다슈탐하야 가지고 무양계도섬에 가 양반이 되미어더흔고흔디 모든 노복이 일시에 오락하거날<sup>37)</sup>

<허생전>에서 도적들이 공도에서 농사를 지은 것으로 일본의 장기도에 가서 무역을 하고 진흥을 하는 행위는 조선의 폐쇄적인 유통 구조의 폐단을 극복한 방법으로 해외 무역의 필요성을 제시한 부분으로도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 때는 송의 장삿배들이 해마다 자주 예성강에 닿았으며, 백화가 몰려들었다. 고려왕은 예절을 차려서 대우했으므로, 당시에 서적들은 훌륭히 갖추어졌고, 중국의 기물로서 안 들어온 것이 없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뱃길로 중국 남방과 통상을 하지 못하므로 문헌에는 더구나 캄캄하며, 삼왕의 일을 몰랐던 것도 전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 강남과 통하므로, 명의 말년에 고기(古器)와 서화와 서적과 약료가 장지방에 폭주하여 지금의 검가당 주인 목씨 홍공의 자는 세숙인데, 3만권의 책을 가지고 중국의 명사와도 많은 교제가 있다고 한다. 박지원 원저,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열하일기』 II, 243면.

37) 단국대학교 율곡도서관 소장 42장본 <김학공전>, 2-2~3-1면.

② 일 〃은 동지 당의가 비란에 용모를 보니 문필이 디밭히고 얼굴이 관옥  
 갖트여 짐짓 일터 영웅이라 니 힘에 깃거혀여 집에 돌라와 할미덜어왈 서당  
 에와 비란을 보니 문필이 현달히고 얼굴이 풍양흐니 엇지 갑부지 아니흐리  
 요 도로다려다가 잘길으면 일후에 영화를 보리르니 할미허락허거날 학공을  
 즉시 달려오니 할미보고 과연 기특히 여겨 쾌이 허락흐니라 잇썸 동지 무남  
 동여을 두어시니 일흠은 별선이라 용모지질이 비범함으로 널리 가랑를 구하  
 든니 일일은 동지 비란으로 비필을 정코져혀여 할미덜어이말흐니<sup>38)</sup>

하지만 이러한 노비 도적들의 신분 상승에 대한 욕망은 김학공에 의해 좌절되고 만다. 김학공의 신분이 탄로 나자 노비 도적들이 김학공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별선이 김학공을 대신해 죽고, 별선의 도움으로 계도섬을 빠져 나간 김학공이 장원 급제를 하여 다시 계도섬으로 들어가 노비 도적들을 징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학공전>의 계도섬은 도망 노비 도적들의 신분 상승에 대한 욕망이 표출된 공간이자 좌절된 공간으로 형상화된 것으로 보인다.

<김학공전>과 마찬가지로 <서해무릉기>의 해도 공간인 서해무릉 역시 도적의 욕망이 표출된 공간이자 그 욕망이 좌절되는 공간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러나 도적들의 신분상승에 대한 욕망이 표출된 공간인 <김학공전>의 계도섬과 달리, <서해무릉기>의 서해무릉은 도적의 최씨에 대한 애정 성취에 대한 욕망이 표출된 공간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서해무릉기>에 등장하는 도적은 최씨가 유연과 혼인한 첫날밤 최씨를 납치하여 서해무릉에 감금하지만, 도적은 최씨를 단순한 애욕의 대상이 아닌 애정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최씨와의 혼인을 간절하게 원했다. 이러한 도적의 심정은 최씨가 유연과 혼인하기 전부터 최씨의 인물과 인품

38) 단국대학교 율곡도서관 소장 42장본 <김학공전>, 12-1~12-2면.

이 훌륭하다는 소문을 듣고 최씨와 혼인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그부인니 디경차탄하며 다시 위로왈 (중략) 다만 슬허의 일즈를 두엇스나 연기 심팔에 미부롤 턱지못 허여 스방으로 요조숙여를 광구홀제 소저에 월 터 화용과 현미숙덕은 익회듯고 흠모호온지오리나 아직 미경허기로 장성흠은 기다리더니 문득 드름에 성혼결연한다함으로 비록 예를 가초와스나 합허 지아여 속히 다녀옵이니 이거시 무다 천정신수운익이나 조금도 한탄상심치 말나<sup>39)</sup>

그래서 최씨를 납치할 때에도 도적은 장졸들에게 인명을 해치지 말라고 이르며, 최씨를 교자에 태워 평안히 모시라고 당부하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과의 혼인을 거부하는 최씨에게 혼인을 강압하지는 않으며 최씨의 마음이 변할 때까지 기다린다. 또한 최씨가 거짓 편지를 써 놓고 물가에 자신의 옷을 벗어 놓고 유연과 함께 서해무릉을 탈출했을 때도 도적은 최씨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방에 빈소를 차리고 조석제전을 극진히 받들며 식음을 전폐하기까지 한다.

① 장군니 처음은 의심허더니 강가에 최씨 슈려와 나생이 노혀시물보고 그췌이 청고강시흠은 알디 비로소 누웃고 크게 슬허허여 선을 불러 츠스롤 무르니 선니 최씨 야간문담 사를 일〃 히 고향디 부인은 더욱 이련츠악하마을 금치못하고 장군은 실심묵〃 부언니더라<sup>40)</sup>

② 츠시 장군니 처음은 승의게 의심이 미치나 그췌 호졸들에게 영은나려

39) <서해무릉기 권지단>, 앞의 책, 14~15면.

40) <서해무릉기 권지단>, 앞의 책, 35면.

그쳐의 접제치못하게 하여 수문앞과 그승 도라간후 일망이 넘은후 츠변이 낫스니 최씨 척실이 독은들 알고 회포를 이기지 못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울 // 물낙하더라<sup>41)</sup>

하지만 최씨를 찾아온 유연과 함께 서해무릉을 탈출함으로써 최씨와의 애정 성취에 대한 도적의 욕망은 좌절된다. 따라서 <서해무릉기>의 해도 공간인 서해무릉은 도적의 최씨와의 애정 성취에 대한 욕망이 표출된 공간이자 그 욕망이 좌절된 공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김학공전>과 <서해무릉기>가 지향하는 의미는 다르지만 두 작품의 해도 공간인 계도섬과 서해무릉이 악인으로 형상화된 도적들이 각각 신분 상승과 애정성취라는 욕망을 표출한 공간이자 그 욕망이 실현되지 못하고 좌절되는 공간으로 형상화된 것은 공통된다.<sup>42)</sup>

#### 4. 고전소설 속 도적들의 근거지로 형상화된 해도 공간의 기능

<홍길동전><허생전><김학공전><서해무릉기>에서 해도 공간은 공통적으로 도적들의 근거지로 설정되어 있지만 <홍길동전>과 <허생전>의 해도 공간인 울도국과 공도는 국외로, <김학공전>과 <서해무릉기>의 해도 공간인 계도섬과 서해무릉은 국내의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해도 공간이 작품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3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41) <서해무릉기 권지단>, 앞의 책, 37면.

42) 따라서 <홍길동전><허생전><김학공전><서해무릉기>의 해도 공간은 이상향이라기보다는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에 해당하는 조선후기 사회의 시대적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설정된 일종의 문학적 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적들의 근거지로 설정된 해도 공간이 작품에서 수행하는 기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1) 집권층의 특권 의식과 조선 통치 체제의 비판

해외의 해도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홍길동전>과 <허생전>의 울도국과 공도는 조선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조선에서는 도적에 불과했던 홍길동이 울도국에서는 최고의 신분인 왕의 지위에까지 오르며, <허생전>에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고 변산반도에 기거하던 도적들이 허생과 함께 들어간 공도에서는 농사를 짓고 무역을 하며 진흙까지 하고도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력을 갖춘 건실한 민중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울도국과 공도가 조선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형상화된 것은 <홍길동전>과 <허생전>의 체제 비판적인 성향과 연관된 것으로 생각된다.

홍길동은 양반 못지않은 능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서얼이라는 이유로 가정과 사회에서 차별을 받아 도적이 되어 저항했고, 조선왕은 홍길동의 능력을 알고 있으면서도 통치 질서에 저항한다는 이유로 홍길동을 조선에서 떠나게 했다. 그러나 정작 조선을 떠난 홍길동은 울도국을 정벌하고 왕이 되어 일국을 태평하게 통치한다. 조선에서는 도적에 불과한 홍길동이 울도국에서는 최고의 신분인 왕의 지위에까지 올라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홍길동전>의 울도국은 조선의 집권층과 통치 질서를 비판하기 위해 설정된 공간이라 생각된다. 홍길동의 신분인 서얼은 축첩제의 산물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특권을 누리고 향유했던 양반 지배층에 의해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sup>43)</sup>

43) 신동근·김용만, 『조선시대 서얼의 신분적 지위와 재산소유』, 『논문집』18, 영남이공대학, 1989, 186면.

실제로 조선 시대 서얼들은 재산 상속과 한직제·한품제로 가정과 사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었고<sup>44)</sup> 이러한 차별에 대해 通淸과 鄕戰 등의 방법으로 저항한 결과,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법제상의 장애가 완전히 제거되었지만 이때까지도 서얼에 대한 차별은 잔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45)</sup> 이러한 서얼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의 잔존 현상은 축첩제와 같은 남성 중심적인 제도와 양반 수의 증가를 막기 위한 집권층의 특권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홍길동전>의 울도국은 특권을 누리하고자하는 집권층과 이러한 특권 의식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조선의 통치 체제를 비판하기 위해 설정된 공간이라 생각된다.

<홍길동전>에서의 울도국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허생전>의 공도 또한 집권층의 특권 의식과 조선의 통치 체제를 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보인다. 허생은 자신의 시험이 끝났다고 하면서 섬의 화근을 없애기 위해 글을 아는 사람과 함께 섬을 빠져 나오는데, 이 장면을 통해서 집권층에 대한 비판 의식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허생의 시험은 변씨에게 돈을 빌려 두고 행위를 한 뒤에 경제적 궁핍으로 변산반도에 기거하는 도적의 무리를 이끌고 공도에 들어가 농사와 무역을 통해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허생의 시험은 조선의 유통 구조가 폐쇄적이라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 그 근본적인 원인은 집권층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박지원의 견해는 아래에 제시된 『일신수필』의 <車制>에서도 확인된다.

44) 최이훈, 「조선 초기 서얼의 차대와 신분」, 『역사학보』204, 역사학회, 2009, 145~152면.

45) 이종일, 「양반서얼의 통정운동」, 『한국사』34, 탐구당, 2003, 41~64면; 배재홍, 「조선 후기 향촌사회에서 庶孽의 존재 양태와 鄕戰」, 『경북사학』15, 경북사학회, 1992, 39~67면.

이제 육진의 마포와 관서의 명주, 양남의 닥종이와 해서의 솜·쇠, 내포의 생선·소금 등은 모두 인민들의 살림살이에서 어느 하나 없지 못할 물건들이며, 청산·보은의 천 그루 대추와 황주·봉산의 천 그루 배와 홍양·남해의 천 그루 굴·유, 임천·한산의 천 이랑 모시와 관동의 천 통 벌꿀들은 모두 우리 일상 생활에서 서로 바꾸어 써야 할 것이거늘, 이제 이곳에서 천 한 물건이 저 곳에서는 귀할 뿐더러 그 이름은 들어도 실지로 보지 못함은 어찌된 까닭일까. 그는 오로지 멀리 나를 힘이 없기 때문이다. 사방이 겨우 몇 천리밖에 안 되는 나라에 인민의 살림살이가 이다지 가난함은 한말로 표현한다면 수레가 국내에 다니지 못한 까닭이라 하겠다. 어떤 이가, “그러면 수레는 어찌하여 다니지 못하는 거요.”하고 묻는다면, 역시 한 마디 말로, “이는 사대부들의 허물입니다”하고 답할 것이다. 왜냐 하면 그들은 평소에 글을 읽을 때에는 “『주례』는 성인이 지으신 글이야.”하고는, 또 윤인(輪人)이니, 여인(輿人)이니, 거인(車人)이니, 주인(輶人)이니 하고 떠들었으나, 마침내 그 만드는 기술이 어떠한지 그 움직이는 방법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도무지 연구하지 않으니, 이는 이른바 글만 읽을 뿐이어서 참된 학문에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sup>46)</sup>

<허생전>과 위 <車制>의 인용문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도고 행위는 임병양란 이후 조선의 재정 확보와 상품 유통 경제의 장악을 위해 시전 상인에게 금난전권을 부여한 데서 비롯되었지만, 시전 상인들의 도고 행위는 오히려 상품 유통 경제를 혼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

46) 今夫六鎮之麻布 關西之明紬 兩南之楮紙 海西之綿鐵 內浦之魚鹽 俱民生日用而不可闕者 靑山報恩之間千樹棘 黃州鳳山之間千樹梨 興陽海之間千樹橘柚 林川韓山千畦芋奈 關東之千筒蠶蜜 爲民生日用 而莫不欲相資而相生也 然而此賤而彼貴 聞名而不見者何也 職由無力而致之耳 方數千里之國 民萌產業 若是其貧 一言而蔽之曰 車不行域中 請問其故 車奚不行 一言而蔽之曰 士大夫之過也 平生讀書則曰 周禮聖人之作也 曰輪人 曰輿人 曰車人 曰輶人 然 竟不構造之法如何 行之之術如何 是所謂徒讀 何補於學哉. 박지원 원저,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열하일기』 I, 183~184, 568면.

러져 있다. 조정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여러 차례 통공 정책을 실시하여 금난전권을 폐지하는 데 성공했지만 私商들의 도고 행위는 심각해졌고 유통 구조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고 한다.<sup>47)</sup> 결국 집권층의 이익을 위해 시전 상인에게 부여한 금난전권으로 인해 조선의 유통 구조가 혼란스러워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유통 구조의 폐단으로 인해 <허생전>에서는 백성들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고 도적으로까지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허생전>에서 해외의 해도 공간으로 설정된 공도는 <홍길동전>의 울도국과 함께 조선과는 대비되는 공간으로, 집권층의 특권 의식과 이러한 특권 의식에 기반을 둔 보수적이고 안일한 조선의 통치 체제와 구조적 모순을 비판하기 위해 설정된 문학적 장치로 생각된다.

## 2) 저항 세력의 비판과 중세 봉건 지배 질서의 옹호

<김학공전>의 도적들은 <홍길동전><허생전><서해무릉기>에 등장하는 도적들과 달리 천민 노비 신분으로, 김학공 집안의 재물을 탈취하여 계도섬에 은거하는 악인으로 등장한다. 따라서 <김학공전>에서 해도 공간에 거주하는 도적들에 대한 시각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지배 질서에 저항하는 세력들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김학공전>이 체제 옹호적이며 보수적 성향의 작품이라는 점을 보여주는데, <김학공전>의 이러한 성향은 해도 공간인 계도섬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사건에서 집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김학공전>의 계도섬은 김학공 집안의 재물을 훔친 노비 도적들이 은

47) 김동철, 『채제공의 경제정책에 관한 고찰』, 『부대사학』4, 부산대학교, 1980, 155면; 변광석, 『18세기 亂塵·都賈에 대한 정부의 상업정책』, 『지역과 역사』1, 부경역사연구소, 1996, 237~275면; 백승철, 앞의 논문, 48~68면 참조.

거하는 공간으로, 이들 노비 도적들은 김학공에 의해 모두 징치된다. 이처럼 김학공이 계도섬에 은거하는 노비 도적들을 징치하는 행위는 조선 후기 노비 추쇄 과정이 반영된 것으로 논의된 바 있다.<sup>48)</sup> 실제 조선 후기에는 도망 또는 은루 노비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비 추쇄 사업을 실시했지만 노비들의 도망 지역을 확인하는데 그칠 정도로 노비들의 끈질긴 도망에 대한 추쇄는 지극히 어려웠으며,<sup>49)</sup> 노비 추쇄 과정에서 도망 노비 및 그 受托者나 容隱者의 물리적인 저항을 받아들여 당하거나 피살되는 사건까지 빈번하게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50)</sup> 하지만 아래의 인용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김학공전>에서 김학공은 계도섬에 은거하는 노비 도적들의 재물을 몰수하고 그들의 집을 불태우면서 노비 도적들을 징치하여 노비 추쇄에 성공한다.

즈사 다시 분부하여왈 그놈덜 잡으가서 지물을 다가지오고 어린아히라도  
흐나도 남기지말고 다죽기고 그집은 다불을 지르고하라 흐신디 그군졸더리  
영을 두고 일시의 너다라 지물을 다가지오고 집은 다불지오고 도라와 보이  
지물이 티산갓겨날 즈사 츠레로 니여본즉 부모적의 씨든금은 보피만 커날  
싸로가려노오며왈 이거슨 세전지그물이라 티가져가노라<sup>51)</sup>

도망 노비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도망 노비에 대한 추쇄가 지극히

48) <김학공전>은 <김씨남정기><신계후전><살신성인><삼강문><탄금대> 등의 작품과 함께 추노계 소설로 규정된 바 있다. 정준식, 『추노계 서사문학의 전개 양상과 사회적 의미』, 부산대 박사학위 논문, 1998, 35면.

49) 조정에서는 해도 지역이나 국방상 중요한 지역의 경우에는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노비 추쇄를 금지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형택, 『조선 양반 사회와 노비』, 문헌, 2011, 322, 345, 366, 370~383면.

50) 정준식, 위의 논문, 21면.

51) 단국대학교 율곡도서관 소장 42장본 <김학공전>, 33-1~33-2면.

어려웠던 조선 후기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주인의 재물을 훔친 노비 도적에 대한 노비 추쇄를 성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김학공전>은 신분 제도를 옹호하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서술된 작품이라 생각된다.

또한 노비 추쇄에 성공한 김학공은 자신을 대신해 죽은 노비 도적의 딸인 별선을 위해 재를 올려 별선을 재생하게 한다. 김학공을 대신해 죽은 별선이 김학공의 노력으로 재생했다는 것은 양반 남성을 위한 천민 여성의 희생과 함께 천민 여성의 죽은 목숨까지 살리는 양반 남성의 능력을 부각시킨 장면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사건들이 모두 계도섬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김학공전>의 해도 공간으로 설정된 계도섬은 <홍길동전>이나 <허생전>의 해도 공간과는 달리 지배 체제에 저항하는 세력인 노비 도적들을 비판하고 신분 제도로 대표되는 중세 봉건 지배 질서를 옹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라 생각된다.

### 3) 조선후기 浮游·浮浪 집단의 정착 의지 반영

<서해무릉기>에서 도적은 죄씨를 납치하여 서해무릉에 감금한 뒤에 자신과의 혼인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도적은 죄씨가 유연과 혼인하기 전부터 죄씨를 진심으로 사모하여 혼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혼인한 여성을 납치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도적의 행위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면서 범죄 행위를 일삼았던 조선 후기 무뢰한과 같은 부유·부랑 집단의 행패와 유사하다. 실제 조선 후기 무뢰한과 같은 부유·부랑 집단들은 무기를 소지한 채 민가를 침탈하여 유부녀를 납치하고 겁탈하거나 재산을 빼앗는 것과 같은 여러 행패를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sup>52)</sup>

52) 조창희, 「조선후기 무뢰배에 관한 연구」, 『국제문화연구』22, 청주대학교 국제협력연구원, 2004, 89면; 변주승, 「19세기 유민의 실태와 그 성격 - 浮游集團을 중심으로 -」,

이러한 무뢰한과 같은 부유·부랑 집단은 유민의 한 부류에 속하는데, 조선 후기 유민들은 거주지와 생계 수단을 포함하여 신분과 가족 구성원에서 변화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53)</sup> 유민의 한 부류에 속하는 부유·부랑 집단 역시 이러한 변화를 겪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 곳에 정착하여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조차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로 생각된다. 더구나 이들은 범죄 집단의 성격을 드러내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혼인을 하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서해무릉기>의 도적처럼 혼인한 여성을 납치하는 비정상적이고 반인륜적이며 비윤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가정을 이루는 경우도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무뢰한과 같은 부유·부랑 집단의 면모를 드러내는 <서해무릉기>의 도적이 최씨를 납치하여 혼인을 요구하는 행위는 육지에서 동떨어진 서해무릉이라는 해도 공간에서 혼인을 하여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자 정착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아래의 인용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서해무릉기>의 최씨뿐만 아니라 최씨에게 자신의 아들과 혼인을 부추기도 하는 도적의 어미 정씨, 최씨의 시비인 계선 역시 도적들에게 납치되어 서해무릉에 감금된 생활을 한 인물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최씨가 자결한 것처럼 꾸미고 유연과 함께 서해무릉을 탈출하자 도적은 또 다시 오씨 모녀를 납치하기에 이른다.

㉠ 그부인니 디경차탄허며 다시 위로왈 이고사람은 화협을 일삼아 산허에 숨어 이런노릇설함으로 나도 경기 형화촌에 사는 정위공에 여아로 팔즈 무성허여 비로소 십삼세에 이러한 무리에게 잡혀 와서지니 한목숨이 츄마

『사충』40, 고대사학회, 1992, 55면.

53) 변주승, 앞의 논문, 1997, 1~2면.

죽지못하고 속절업시 부모형테를 이별후후 임연세월이 여어 춘휴라 츠명이  
부천하야 시일을 보닐시<sup>54)</sup>

② 계선이 디왈 소비등은 청원짜 예방의 쌀일너니 신세 기궁하여 장군에  
게 좁히어음에 산은 중 〃 하고 무변디히난망호오니 아모딘줄 모르오나 오직  
티산은 등져 하늘에 다혀는 오월이르디 빅설이 산성을 덤허스니 스남이 모  
다 명호오르 빅두산니라 호더이다<sup>55)</sup>

③ 잇디 히남다의 스는 진스 우공의 부인 오시는 일즉 과거하고 슬하의  
다만 유복여 쏘나나 모녀 서로 의지하야 안거홀시 우소져 연기 십찰의 지덕  
이 겸비하고 총명 영오하야 아담미묘하야 행성이 원즈의 진동호더니 일야간  
디적이 드러와 모여를 탈취하야 간곳이 업슨지라<sup>56)</sup>

이처럼 죄씨를 감금해 놓고 혼인을 요구하고 죄씨가 실제로 죽은 줄 알  
고 또다시 오씨 모녀를 납치하는 도적의 행위와 도적의 어미 정씨, 시비  
계선이 모두 도적들에게 납치되어 서해무릉에서 감금된 생활을 했다는  
것은 혼인을 하여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도적들의 정착에 대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sup>57)</sup> 따라서 <서해무릉기>의 해도 공간

54) <서해무릉기 권지단>, 앞의 책, 14~15면.

55) <서해무릉기 권지단>, 앞의 책, 17면.

56) <서해무릉기 권지단>, 앞의 책, 52면.

57) 도적의 어미인 정씨가 죄씨에게 자신의 아들과 혼인하기를 권유하는 행위 역시 아들  
이 혼인하여 온전한 가정을 꾸리면서 정착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  
각된다.

다만 슬하의 일즈를 두었스나 연기 십팔에 미부를 톡지못하여 스방로 요주숙여를 광  
구홀제 소져에 율티 화용과 현미숙덕은 익회듯고 흠모호은지오리나 아직 미경호기로  
장성흠은 기다리더니 문득 드름에 성혼결연한다함으로 비록 예를 기초와스나 합호지  
아여 속히 다녀옴이니 이거서 무다 천정신수운익이나 조곰도 한탄상심치말나. <서해  
무릉기 권지단>, 앞의 책, 15면.

으로 설정된 서해무릉은 조선 후기 공권력이 미치지 못했던 일부 해도 지역에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자 했던 무뢰한과 같은 부유·부랑 집단의 정착 의지가 반영된 공간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본다.

## 5. 결론

본 논문은 고전소설 속 해도 공간이 이상향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선행 연구에 대해 반론으로, <홍길동전><허생전><김학공전><서해무릉기>를 대상으로 하여 고전소설 속 도적의 근거지로 설정된 해도 공간의 양상과 기능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전소설 속 해도 공간이 도적의 근거지로 설정된 것은 조선 후기 유민의 입도 현상과 입도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리고 해도 지역의 풍요로운 자연 환경과 경제적 기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홍길동전><허생전><김학공전><서해무릉기>에 반영되었다. 둘째, <홍길동전>의 제도와 울도국은 조선왕에 대한 대항의 공간으로, <허생전>의 공도는 조선의 폐쇄적 유통 구조의 입증 공간으로, <김학공전>과 <서해무릉기>의 계도섬과 서해무릉은 각각 신분 상승과 애정 성취라는 욕망이 표출되지만 좌절되는 공간으로 형상화되었다. 셋째, 해외의 해도 공간으로 설정된 <홍길동전>의 제도와 울도국, <허생전>의 공도는 집권층의 특권 의식과 이러한 특권 의식을 기반으로 구성된 조선의 통치 체제를 비판하며, 국내의 해도 공간으로 설정된 <김학공전>의 계도섬은 <홍길동전><허생전>의 해도 공간과는 반대로 저항 세력을 비판하고 신분 제도로 대표되는 중세 봉건 지배 질서를 유지하며, <서해무릉기>의 서해무릉은 조선후기 무뢰한과 같은 부유·부랑 집단들의 정착 의지를

반영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논의했다. 따라서 고전소설 속 해도 공간을 더 이상 이상향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다고 본다.

이처럼 본 논문에서는 고전소설의 해도 공간을 이상향으로 규정지었던 기존의 논의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서, 도적의 근거지로 설정된 해도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홍길동전><허생전><김학공전><서해무릉기>를 대상으로 해도 공간의 형상화 방식과 기능에 대해 고찰했다. 하지만 이 네 작품 외에도 해도가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는 작품에는 <김학공전>의 개작인 <신계후전>, <심청전>의 이본인 <몽금도전>을 비롯하여 <남염부주지><동선기><임경업전><이순신전><태원지>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홍길동전><허생전><김학공전><서해무릉기>를 대상으로 도적의 근거지로 설정된 해도 공간만으로 한정지어 논의를 전개했지만, 논의의 대상을 넓힌다면 고전소설 속 해도 공간의 다양한 형상화 방식에 대한 고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확장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진다면 고전소설의 해도 공간을 이상향으로 규정했던 기존의 연구 결과를 좀 더 체계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의 여러 한계점에 대한 보완과 논의의 대상을 넓힌 고전소설 속 해도 공간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은 앞으로 수행해야할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기본자료

경관 29장본 <홍길동전 권지단>, 『고소설판각본전집』5, 연세대학교, 1975, 1003~1018면.

경관 30장본 <홍길동전>, 이윤석, 『홍길동전 연구 - 서지와 해석』,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6, 217~247면.

단국대학교 읍곡도서관 소장 42장본 <김학공전>

박지원 원저,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열하일기』 I, 경인문화사, 1976, 1~670면.

박지원 원저,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열하일기』 II, 경인문화사, 1976, 9~664면.

<서해무릉기 권지단>, 『김광순 소장 필사본 한국고소설전집』 8, 경인문화사, 1998, 1~52면.

#### 저서 및 논문

강동엽, 『허균과 유토피아』, 『한국어문학연구』 41,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3, 139~170면.

김경미, 『타자의 서사, 타자화의 서사, <홍길동전>』, 『고소설연구』 30, 한국고소설학회, 2010.

김경옥, 『조선후기 도서 연구』, 혜안, 2004, 1~373면.

김동철, 『체제공의 경제정책에 관한 고찰』, 『부대사학』 4, 부산대사학회, 1980, 141~173면.

김명순, 『서해무릉기』,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887~904면.

김명순, 『<서해무릉기>의 혼사획득 내용과 그 의미』, 『한국 고전소설과 서사문학』 上, 집문당, 1998, 527~548면.

김수중, 『<허생전>의 시대정신과 현대적 적용의 문제』, 『한민족어문학』 56, 한민족어문학회, 2010, 209~236면.

김일렬, 『<홍길동전>의 구조와 의미』, 『국어국문학』 99, 국어국문학회, 1988, 89~111면.

김일렬, 『고전소설신론』, 새문사, 2001, 12~436면.

김종균, 『해외개척 대도 설화의 소설 유입 양상과 의미 -<허생전>과 <홍길동전>의 경우-』, 『어문연구』 50, 어문연구학회, 2006, 5~35면.

김태준, 『<홍길동전>의 이상주의』, 『허균의 문학과 혁신 사상』, 새문사, 1981, 1-50~66면.

박일용, 『영웅소설의 소설사적 변주』, 월인, 2003, 15~417면.

배재홍, 『조선후기 향촌사회에서 庶孽의 존재 양태와 鄉戰』, 『경북사학』 15, 경북사학회, 1992, 39~67면.

- 배정희, 「〈서해무릉기〉 신고찰」, 『문학과 언어』26, 문학과 언어학회, 2004, 199~222면.
- 백승철, 「영·정조대 상업정책의 전개와 그 특징」, 『동방학지』11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2, 41~91면.
- 변광석, 「18세기 亂塵·都賈에 대한 정부의 상업정책」, 『지역과 역사』1, 부경역사연구소, 1996, 237~275면.
- 변주승, 「19세기 유민의 실태와 그 성격 - 浮游集團을 중심으로-」, 『사총』40, 고대사학회, 1992, 41~78면.
- 변주승, 「조선 후기 유민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1997, 1~245면.
- 소재영, 「한국문학에 나타난 이상향 연구」, 『동방문화비교연구총서』3, 한국동방문화비교연구회, 1997, 129~133면.
- 신동근·김용만, 「조선시대 서얼의 신분적 지위와 재산소유」, 『논문집』18, 영남이공대학, 1989, 185~193면.
- 이문규, 「‘허생’의 인물형상고」, 『선청어문』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08, 377~409면.
- 이상현, 「〈홍길동전〉에서 이상향적 요소 연구」, 공주교대 석사학위논문, 2003, 1~60면.
- 이윤석·최상천, 「〈홍길동전〉의 역사·사회적 분석」, 『한국전통문화연구』5, 효성가톨릭대 전통문화연구소, 1989, 255~274면.
- 이정난, 「〈홍길동전〉 연구 - 울도국이 지니는 의미를 중심으로-」, 호남대 석사학위 논문, 2012, 1~57면.
- 이정화, 「〈서해무릉기〉의 탐색 모티프 연구」, 경북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7, 1~78면.
- 이종일, 「양반서얼의 통청운동」, 『한국사』34, 탐구당, 2003, 41~64면.
- 이현국, 「〈홍길동전〉에 있어서 울도국의 위상과 성격」, 『문학과 언어』8, 문학과 언어학회, 1987, 137~164면.
- 임형택,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 비평사, 1984, 3~486면.
- 전형택, 『조선 양반사회와 노비』, 문현, 2011, 13~470면.
- 정우선, 「한국문학에 나타난 이상사회 구현 양상 고찰 - 현실적 이상사회를 중심으로-」, 중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119면.
- 정준식, 「추노계 서사문학의 전개 양상과 사회적 의미」, 부산대 박사학위 논문,

1998, 1~179면.

주강현, 『유토피아의 탄생, 섬-이상향/이어도의 심성사』, 돌베개, 2012, 9~296면.

조창희, 『조선후기 무뢰배에 관한 연구』, 『국제문화연구』22, 청주대학교 국제협력 연구원, 2004, 87~103면.

차용주, 『허생전의 모순과 한계성에 대한 고찰』, 『한국학논집』9,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2, 1~30면.

최이돈, 『조선 초기 서얼의 차대와 신분』, 『역사학보』204, 역사학회, 2009, 141~187면.

한희숙, 『17세기 후반 도적활동과 국가의 대책』, 『조선시대사학보』21, 조선시대사학회, 2002, 67~105면.

E.J.홉스봄, 황의방 역, 『의적의 사회사』, 한길사, 1969, 9~189면.

ABSTRACT

The Study on the a Sea Island Space as Bandits Base in Classical-Novels

Seo, Hye-eun

This study on the sea island space as bandits base in 〈Hong-Gil-Dong-Jeon〉〈Heo-Saeng-Jeon〉〈Kim-Hak-Gong-Jeon〉〈Seo-Hae-Mu-Reung-Gi〉. What sea island space was created as bandits base in these novels are as follows.

First wandering people go in to sea island and they were negatively perceived to people. Second natural environment of sea island was plenteous. So economic base of sea island was prepared than inland. Because these vintage background was sea island space was created as bandits base in 〈Hong-Gil-Dong-Jeon〉〈Heo-Saeng-Jeon〉〈Kim-Hak-Gong-Jeon〉〈Seo-Hae-Mu-Reung-Gi〉.

But these novels creative manner of sea island space was different. The sea island space of 〈Hong-Gil-Dong-Jeon〉 is Je-Do island and Yul-Do-Guk. These sea island space are created oppositive space against king of Jo-Seon Dynasty. Gong-Do of 〈Heo-Saeng-Jeon〉 is created to prove cleidoic distribution structure of Jo-Seon Dynasty. Ge-Do island of 〈Kim-Hak-Gong-Jeon〉 and Seo-Hae-Mu-Reung of 〈Seo-Hae-Mu-Reung-Gi〉 are created to affection conflict and solution.

The sea island space of 〈Hong-Gil-Dong-Jeon〉〈Heo-Saeng-Jeon〉 are created overseas and sea island space of 〈Kim-Hak-Gong-Jeon〉〈Seo-Hae-Mu-Reung-Gi〉 are created internal. The sea island space of 〈Hong-Gil-Dong-Jeon〉〈Heo-Saeng-Jeon〉 are responsible for criticize conscious of the privilege of hierarchy and ruling system of Jo-Seon Dynasty. And the sea island space of 〈Kim-Hak-Gong-Jeon〉 is to act as criticize away from male and female servants and protect medieval feudalism like caste system. The sea island space of 〈Seo-Hae-Mu-Reung-Gi〉 is reflected settlement will of floating · vagrancy-group as rogue.

**Key Words** bandits, wandering people, a sea island space, utopia, rogue, floating ·  
vagrancy-group, <Hong-Gil-Dong-Jeon>, <Heo-Saeng-Jeon>, <Kim-Hak-Gong-  
-Jeon>, <Seo-Hae-Mu-Reung-Gi>

논문투고일 : 2012. 10. 20

심사완료일 : 2012. 11. 28

게재확정일 : 2012. 12. 02